

국어의 구어와 문어의 특성

노 대규

연세대학교 문리대학 국어국문학과

Characters of Spoken and Written Korean

Noh Dae-Kyu

Yonsei University

국어의 구어는 격식적으로도 사용되고 비격식적으로도 쓰인다. 회의, 토론, 강의, 뉴스 방송 등에서는 주로 격식적 구어가, 그리고 가족 사이나 친구 사이의 대화, 소설 및 희곡의 대화 등에서는 주로 비격식적 구어가 쓰인다. 국어의 문어도 구어와 마찬가지로 격식적으로도 사용되고 비격식적으로도 쓰인다. 학술 논문, 논설문, 보고서, 신문 기사 등에서는 주로 격식적 문어가, 그리고 편지, 일기, 동화 등에서는 주로 비격식적 문어가 쓰인다.

이 논문의 목적은 주로 비격식적 구어와 격식적 문어를 대상으로 하여 국어의 구어와 문어의 문법적 특성, 곧 의미적, 통사적, 음운적 특성을 밝히는 데에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국어의 비격식적 구어와 격식적 문어의 의미적 특성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a. 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b. 어, 그게 그렇게 될까요?
 c. 저, 여기엔 아무도 없어요.
 d. 있잖아, 너 내일 시간이 있지?
- (2) a. 제가요, 어제요, 친구하고요, 영화를요, 보 았는데요, 참 재미있었어요.
 b. 이것은 국산품인데말이야, 질이말이야, 아주 좋아.
 c. 아까있지, 영이가있지, 손이를있지, 울렸어.
 d. 제가 하지요 뭐.
- (3) a. 참 좋기도 하겠다, 좋기도 하겠어.
 b.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뭐라고 했어?
 c. 값이 아주 아주 비싸요.
 d. 너, 너 왜 그러니, 왜 그래?
- (4) a. 요 친구가 왜 안 오지?
 b. 고개 뭐야?
 c. 조런 놈은 그냥 두면 안 돼.
 d. 요만큼만 줘.
- (5) a. { 이, [?]요 } 작가는 고전적인 작품을 많이 남겼다.
 b. { 거기, [?]고기 }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c. { 저러한, [?]조러한 } 사태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할 것인가?
 d. { 이렇게, [?]요렇게 } 사건이 확대된 것은 모두 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 (6) a. 뭐라 했노?
 a'. 무엇이라고 했는가?
 b. 아무케나 쓰문 어드래요?
 b'. 아무렇게나 쓰면 어떠한가?
 c. 그람, 같은 동포를 죽인 죄는 무슨 죄다우?
 c'. 그러면, 같은 동포를 죽인 죄는 무슨 죄인가?
 d. 상을 들러단 그 괴질 음짜 먹어 봐수다.
 d'. 상을 들어다가 그 고기를 모두 먹어 버렸다.
- (7) a. 이 사장은 바지저고리야.

- a'. 이 사장은 실권이 없는 사람이다.
- b. 자동차를 손박아 해.
- b'. 자동차를 수리해야 한다.
- c. 그 일에서 발을 빼었어요.
- c'. 그 일과 관계를 끊었다.
- d. 시험에 미역국을 먹었어요.
- d'. 시험에 낙방하였다.
- (8) a. 그가 뒤지고나서 세상이 달라졌다.
- a'. 그가 죽고 나서 세상이 달라졌다.
- b. 돈을 코블치면 안돼.
- b'. 돈을 훔치면 안된다.
- c. 그 배우는 눈깔이 커요.
- c'. 그 배우는 눈이 크다.
- d. 인신 매매단이 유부녀를 포시는 일이 많아요.
- d'. 인신 매매단이 유부녀를 유혹하는 일이 많다.
- (9) a. 그는 미친 놈이야.
- a'. 그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 b. 이런 개새끼가 있나?
- b'. 이런 짐승 같은 사람이 있는가?
- c. 우라질 놈이야.
- c'. 벌을 받을 사람이다.
- d. 그가 쌍놈인 줄 몰랐어.
- d'. 그가 나쁜 사람인 줄 몰랐다.
- (10) a. 김 의원은 빵에 들어갔어.
- a'. 김 의원은 교도소에 들어갔었다.
- b. 칼치가 없는 남학생이 많아요.
- b'. 여자 친구가 없는 남학생이 많다.
- c. 선생이 학생을 조렸어.
- c'. 선생이 학생을 때렸다.
- d. 불갈비는 맛이 참 기똥차지요.
- d'. 불갈비는 맛이 참 좋다.
- (11) a. 그 사람은 병신이에요.
- a'. 그 사람은 장애자이다.
- b. 뒷간을 깨끗이 써야 해.
- b'. 화장실을 깨끗이 써야 한다.
- c. 식모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 c'. 가정부를 구하기가 힘들다.
- d. 전에는 똥구멍이 짖어지게 가난했었지요.
- d'. 전에는 무척 가난했었다.
- (12) a.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많은 책을 사서 학생들한테 빌려 주고 있어요.
- a'. 그러므로 본 도서관에서는 다량의 서적을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대출하여 주고 있다.
- b. 새 도시 건설 발표 때문에 모든 땅값하고 집값이 갑자기 올랐어요.
- b'. 신도시 건설 발표로 인하여 전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이 급작히 상승하였다.
- c. 오늘 비행기가 떨어져서 승무원하고 승객이 모두 죽었대요.
- c'. 금일 비행기가 추락하여 승무원과 승객 전원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 d. 우리 병원에서는 전화로 미리 진료 예약을 받고 있어요.
- d'. 본원에서는 전화로 사전 진료 예약을 접수하고 있다.
- (13) a.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니까 잘 처리해야 돼.
- a'.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잘 처리해야 한다.
- b. 값은 싸지만 질이 좋은 국산품도 많아요.
- b'. 가격은 저렴하나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도 많다.
- c. 아버지는 총장이고 아들은 학장이에요.
- c'. 아버지는 총장이면 아들은 학장이다.
- d.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서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 d'. 음악을 들으며 공부를 했으므로 성적이 떨어진 것이다.
- (14) a. 저는 집에 있어요.
- b. 순이가 집에 있어요?
- c. 당신은 집에 있어요.
- d. 우리는 가지 말고 집에 있어요.
- (15) a. 나 지금 밥 먹어.
- b. 니 지금 밥 먹어?
- c. 너 지금 밥 먹어.
- d. 우리 이제 그만 놓고 밥 먹어.

- (16) a. 저는 제주도에 갑니다.
 b. 김 선생께서 제주도에 가십니까?
 c. 이 선생께서 제주도에 가십시오.
 d. 우리 같이 제주도에 가십시오.
- (17) a. 나 이제 책 읽는다.
 b. 너 이제 책 읽니?
 c. 너 이제 책 읽어라.
 d. 우리 이제 책 읽자.
- (18) a. 자동차 소비자의 불만이 늘고 있다.
 b.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c. 변호인의 집견은 허용되어야 한다.
 d. 한국 탁구 세계를 제패하다.
- (19) a. 북한은 정말 변하고 있는가?
 b. 누가 지금 사회 정의가 있다고 말할 것인가?
 c. 핵심 배제냐, 아니냐?
 d. 우리 헌법의 골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 될까?
- (20) a. 소신 갖고 책임지는 내각 되라.
 b. 자세한 것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c. 학생 회비 학겨서 거두지 말라.
 d. 기업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라.
- (21) a. 교육 개혁 단행하자.
 b. 한미 동맹 견고히 하자.
 c. 지하철 더 많이 건설하자.
 d. 주체적 예술 문학 창달하자.
- (22) a. (나, 저, 저희,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 (23) a. (너, 너희들) 어디에 가니?
 b. (자네, 당신)도 갔다가 오지.
 c. (닥, 당신)이 먼저 반말을 했잖아요.
 d. (여러분, 계군)은 이제 어린이가 아니에요.
- (24) a. (이이, 그이, 저이)가 누구예요?
 b. (이분, 그분, 저분)이 누구예요?
 c.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은 학교 선생이예요.
 d. (이애, 그애, 저애)는 박 선생님의 딸이예요.
- (25) a. (나, 우리, 필자)는 지금까지 위에서 소월 시의 문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b. 본인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이었다.
- (26) (여러분, 계군)이 사회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 (27)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28) (이것, 그것, 저것)이 누구의 집이예요?
- (29) 종래의 학문은 타인이 설명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면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한 학문은 암기가 주가 되는 이른바 수용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학문의 구조가 강조되는 새로운 학문 연구에서는 받아들이는 학문 대신에 찾아내는 학문 즉, 발견과 탐구의 학문이 강조되고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분야에 대한 학문의 독특한 탐구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새로운 학문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 (30) 오늘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서류를 정리해야 하고, 10시 30분에는 회의에 들어가야 하고, 12시에는 점심 약속이 있고, 오후 2시에는 구매자와 만나기로 되어 있고, 4시에는 다시 회의에 참석해야하고, 이것이 오늘의 제 일정이예요.
- (31) 나는 청소년 문제를 위한 지극히 현실적인 주장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을 문제 집단과 동일시하는 독선적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문제는 어른들의 문제에 비하여 사소하기 그지없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 문제란 사실은 기성 세대의 삶을 반영하고 있음을 터득해야 한다.
- (32) 글은 사람이예요. (다시 말하면, 비껴 말하면, 말하자면) 글은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삶의 양식까지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예요.
- (33) 교육이란 어린이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작용, (즉, 곧) 환경의 조성, 시범, 교습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 (34) a. 연대의 설립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예요.
 a'. 연세대학교의 설립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다.
 b. 한국은 민주공화국이예요.
 b'.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c. 비냉 하나요.
 c'. 비빔 냉면이 물 냉면보다 값이 비싸다.
 d. 시원은 사시를 따라야 해.
 d'. 시원은 회사 시책을 따라야 한다.

- (35) a: 땀을 많이 흘렸군요!
b: 목이 말라요.
b': 물 좀 주세요.
- (36) a: 내일 영화 구경 가자.
b: 내일 할 일이 많아.
b': 내일 영화 구경 갈 수 없어.
- (37) a: 자, 이제 드십시오.
b: 소금 좀 집어 주시겠습니까?
b': 소금 좀 집어 주십시오.
- (38) a: 어서 오십시오.
b: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b': 말씀 좀 나눕시다.
- (39) a: 이 물건 한 개만 팔아 주세요.
b: 다음에 오십시오.
b': 사지 않겠습니다.
- (39) a: 사장님, 저를 찾으셨습니까?
b: 집에 가서 애나 보세요.
b': 회사를 그만 두십시오.